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에 관한 전환적 사고를 바라며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운용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그에 걸맞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줄지어 발생한 여러 충격적인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뢰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윤리경영은 왜 이리 더디게 발전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단초는 아무래도 윤리경영의 개념에 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의 개념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현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윤리경영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윤리경영을 도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윤리경영을 도덕군자처럼 행동하는 것, 따라서 현실에서는 도무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업무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오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윤리경영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 호소해본 들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윤리경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윤리경영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임직원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협력업체간에 상호 동반자로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윤리경영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윤리경영은 고객의 신뢰, 임직원의 신뢰, 협력업체의 신뢰,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창출하여 존경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경영전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경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통해 창출해내는 이 소중한 신뢰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경영이 어찌 시대의 고금, 양의 동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한 때 지나가는 유행에 불과한 것이라 함부로 단정할 수 있으랴!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표준 준수해야"

:: 글로벌 CSR 컨퍼런스를 통해 바라본 윤리경영 전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와 ECOA*는 2013년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아시아에서 기업의 도전: 위기관리와 지속가능미래 구축’이라는 주제로 ‘Global CSR Conference 2013’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를 살펴보고, 컨퍼런스를 통해 바라본 윤리경영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본다.

* ECOA(Ethics & Compliance Officer Association, 윤리준법경영인협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도전

이번 글로벌 CSR 컨퍼런스는 UNGC의 핵심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COA의 반부패와 청렴성을 강조한 윤리, 준법 감시

부문에 대해 조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3면에서 계속됩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서울시, 조달 계약 시 '불공정 기업' 감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점수를 매겨 조달 기업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경제성 위주였던 기존 계약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어려운 신생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韓 'GRI 가이드라인' 사용률 세계 1위

세계 4대 종합회계사그룹인 KPMG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향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GRI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조사 대상의 71%가 보고서를 발간해 이례는 아시아 기업의 보고서 발간율도 유럽(73%)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기업의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성보고회' 작성을 위해 국제기구 GRI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중기중앙회-공정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3일, '중소기업 공정 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건설사, 환경 中소와 해외시장 개척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국내 환경시장 축소에 따른 입찰경쟁

문제를 해외시장 동반진출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17일 '환경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SK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제일모직 7개 대기업이 45개 환경 중소기업과 제품 우선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기업들의 눈을 해외로 돌려 환경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국내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인도, 반부패법 '8수 끝' 45년 만에 제정

인도에서 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 반부패법(일명 옴부즈맨 법안)이 여덟 차례의 시도 끝에 45년 만에 12월 17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하원에서도 가결됐다. 반부패법안은 1968년 처음 의회에 상정된 이후 8수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국민의 신고 등으로 해당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美정부의 하청 국외 의류공장 노동자 인권실태 심각"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의류를 국외공장에 하청을 주어 헐값에 사들이면서 정작 이들 공장의 인권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연방정부가 국외 공장장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현지 의류 공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하청에 따라 옷을 만드는 각국 공장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소개했다.

美 'CDS시장 불공정행위 공모' 기업들 제재 않기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美 법무부가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외부의 신규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그룹 등의 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월 1일 보도했다. 반면, 유럽 금융 당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외부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로 13개 투자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권익위-전경련, '윤리경영 실천사례집' 공동발간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공공부문 10개, 민간부문 10개)들의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권익위와 전경련은 지난 7월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펴 왔다. 동 사례집은 140개 공직유관단체와 500여개 전경련 회원사 등에 배포하여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기업윤리"에서도 누구나 내려받기(download)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부정부패'

EOCA의 사무총장 Keith Darcy(이하 다아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부정부패'라고 소개하며, 기업은 정부 및 다자기구와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리성과 투명성이 강조된 CSR 가치 증진을 선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업문화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환영만찬 축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선진 청렴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신뢰성, 투명성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진정성 있는 CSR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또한, 다아시 총장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순한 사회공헌의 차원을 넘어, 종업원·거대업체·소비자·지역 사회·글로벌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CSR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가치대상 시상식, UNGC 회원들의 CSR활동을 격려하고자 마련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방지의 가치 확산, SR(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이바지 하고 UNGC회원들의 CSR 활동을 격려하고자 'UNGC 가치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동존중경영상, 흙플러스가



〈가치대상 시상식〉

친환경 경영상, SBS미디어그룹과 LG전자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상, SK텔레콤과 교보생명이 지역사회나눔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2013 글로벌 CSR 컨퍼런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선언문' 채택

회의 둘째 날에는 인권, 환경, 여성의 역량 강화, 책임 투자, 사회적 기업, 개발과 민관협력 등을 집중 조명하였으며,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킬



〈서울선언문〉

수 있는 담론을 제시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회의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행동지향적 실천 계획을 포함한 'UNGC-EOCA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3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다. UNGC 한국협회는 내년에는 이번 서울선언문에 채택된 이슈들과 이번 회의 시 논의 되었던 글로벌트렌드를 중심으로 CSR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어 윤리경영 전망 및 나아가야 할 방향

국내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국내 기업은 국내 기준 준수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표준을 준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들이 사회책임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가 하락, 매출 감소,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큰 대가를 치른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외부적인 제도와 교육, 처벌을 통하여 더욱더 반부패에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기업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이 진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CSR활동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선언문에서 채택된 7가지 항목인 협력, 책임, 윤리적 기업문화, 투명성 및 신뢰 구축, 다양성, 교육, 환경 등 글로벌트렌드를 중심으로 CSR을 추진해 나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효과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시스템 모델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경영프로그램이 회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윤리경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짜여진 통합된 체계를 의미한다. 윤리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업부서다. 따라서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실행하는 부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Action Plan

윤리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Action Plan에는 7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윤리경영은 명확한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윤리경영 전략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윤리

경영전담 조직을 설치한 다음,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 도입 후에는, 임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한다.

목적/목표설정	윤리경영은 무엇을 위한 것(for What), 왜(Why)하는가 윤리경영 목적의 명확한 설정 윤리경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윤리경영 목표 수립
현황 진단/분석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윤리경영 설문조사 실시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 관리자 면담 및 자가진단 실시 설문조사 및 진단 결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추진전략 수립	윤리경영 전략적 추진계획 수립 윤리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설정 윤리경영모델 및 윤리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정립
윤리경영 조직구성	윤리운영위원회 구성,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윤리경영전담 조직(윤리담당부서) 설치 윤리경영규정, 윤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효과적 준법프로그램 구성요소(7Steps) 연구 윤리경영모델 정립, 윤리경영시스템 구성요소 확정 윤리강령, 실천지침, 윤리경영방침 중 필수적 방침 제정
교육프로그램 실시	임직원 윤리교육 계획 수립 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윤리교육 실시
평가 개선	윤리경영시스템 평가Tool 개발 윤리경영시스템 운영실태, 임직원 실천상황 평가 실시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및 실천 개선활동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Action Plan 7단계〉 출처: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KBMI)

현장을 찾아서

:: 유한킴벌리 편

유한킴벌리는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윤리적 기업 문화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유한킴벌리는 윤리 경영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CEO의 의지로 시작되는 유한킴벌리의 윤리경영

유한킴벌리의 윤리경영은 CEO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유한킴벌리의 CEO는 윤경SM포럼 CEO 서약식에 9년 연속 참가하는 등 윤리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러한 CEO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기업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윤경SM포럼 CEO서약식〉

독립성 확보를 통한 윤리경영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UN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독립성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윤리법무본부를 신설하여 기업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법무본부는 윤리 경영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행동규범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사원에게 공지하고, 윤리경영에 따른 행동규범 교육을 전 사원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CSR에서 CSV까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업의 공익캠페인 중 국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그 동안 국유림 나무심기, 시민참여 나무심기, 학교숲 만들기, 동북아사막화 방지,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여성 환경리더양성 등을 통해 자연선진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있다.



〈신혼부부 나무심기 캠페인〉

최근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공유가치창출(CSV) 경영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니어 기금'을 조성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시니어 일 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또한 시니어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가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상생을 위한 노력

투명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동반성장팀을 신설하여 기업 내부에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지속 발전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및 협력 시스템 강화, 협력회사의 사회책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전개해 오고 있다.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경제계 기업경영헌장과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경영헌장

기업경영헌장은 지난 2월 발표하였는데, 7대 원칙과 그에 따른 21개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7대 원칙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윤리경영 실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현, 소비자 권익 증진, 근로자 권익 보호, 사회적 책임에 관한 4대 원칙, 헌장에 대한 실천 다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또한, 전경련은 2013년 11월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금지, 청탁 배제, 상생경영, 고객정보 보호 등을 규정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지침은 2013년 2월 총회에서 발표한 '기업경영헌장'의 후속 조치로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5대 분야	19개 조	주요내용 [41개 행동강령 중]
직무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경제적 이익추구 금지 청탁 금지	기업과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금품, 접대, 편의제공, 인사청탁 등)을 주고받는 행위 불가
협력사 및 고객	상생경영 협력사 정보보호 고객중심 경영 고객정보 보호	[對협력사] 공정·투명하게 선정, 우월적 지위로 부당행위 금지[對고객] 만족스러운 서비스 및 정확한 정보제공, 고객정보보호
구성원 및 주주	인간위주의 경영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보호	[對구성원] 인격 존중, 학습기회 적극제공, 안전·행복한 환경 추구 [對주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공시자료 제공
국가 및 사회	경제발전 기여 환경친화적 경영 사회공헌 활동 정치적 중립성 유지	지속적 고용창출과 성실 납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참여 對정부 관련 부적절 거래 지양
실천지침 준수 및 시행	적용대상 윤리상담센터 등 운영 위반자 처리 특수사항	윤리상담센터 등과 같이 위반사례 신고·검토·조치를 담당하는 윤리조직 운영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기업경영헌장과는 달리, 이번 실천지침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회의회의의 의견 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이번 실천지침에서는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최근 국내외적으로 청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공유해주세요.

A 기업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CEO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 및 윤리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과 윤리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기업 경영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 윤리경영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비윤리적인 임직원에 대해 처벌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렴 및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해상충 발생 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제정해야 하며, 제정 후에도 최신 트렌드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실천지침을 휴대폰의 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는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퀴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통해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소통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부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KSA최고경영자초대회

2014년 경제전망과 지속가능경영을 주제로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강연을 할 예정

- 주 최 : KSA 한국표준협회
- 일 시 : 2014년 1월 23일(목)
-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B1 하모니볼룸

해 외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with Non-Financial Reportin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재무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비재무보고와 투자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 최 : Agrion
- 일 시 : 2014년 1월 16일(목)
- 장 소 : Belgium Brussels

Corporate Sustainability Board Meeting

리더십과 전략, 공급체인,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 최 : Agrion
- 일 시 : 2014년 1월 10일(금)
- 장 소 : USA San Francisco

윤리경영 퀴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천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실천지침의 준수 및 이행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실천지침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기업경영헌장 2) 윤리경영 매트릭스
- 3) 투명경영강화 실천지침 4) 윤리경영시스템 모델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1) 상생경영**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장순원, 김정호, 김동수, 남미애, 유현정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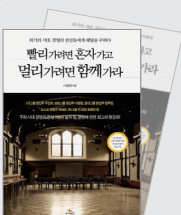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못합니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새로운책 소개



1.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 자 : 김병완
출 판 : 루이앤휴잇
출판일 : 2013년 12월 27일
정 가 : 14,000원



2. 창조경제로 가는 창조경영과 혁신

저 자 : 민경찬
출 판 : 좋은땅
출판일 : 2013년 11월 29일
정 가 : 18,000원



3. 파괴자들

저 자 : 손재권
출 판 : 한스미디어
출판일 : 2013년 11월 30일
정 가 : 16,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